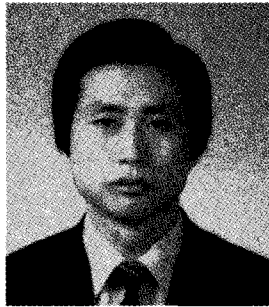


# 조식료 시책방향



**최연순**

농림부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 1. 머리말

우리 소산업은 경쟁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후 이미 완전개방된 낙농품에 이어 불과 4년후인 2001년이면 생우(生牛)와 쇠고기 마저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우리 소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쇠고기와 우유를 값싸게 생산하여 공급해야만 한다. 이와같이 값싸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목장 경영의 70~80%나 되는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과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먼저 양질조식료의 생산 이용을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소사육농가들이 대부분 조식료생산 기반이 취약한데다가 농후사료에 의존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사육농가들이 조식료 생산과 이용을확대해 나갈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의 조식료시책방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2. 현황과 당면한 과제

#### 가. 조식료의 필요성

조식료는 소사육에 있어 필수적이며 경제적인 사료이다. 초식가축에는 조식료가 영양소의 주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 정상적인 반추대사와 생리기능 유지를 통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이후 우리나라 축산물이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을 이겨 나가려면 양질조식료의 공급을 확대하여 쇠고기와 우유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람이나 단위(單胃)가축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풀사료자원을 초식가축에 이용하여 식량 자원화 할 수 있다.

유휴지와 부존 조식료자원을 활용하여 사람이 필요로 하는 축산물을 생산 이용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가축분뇨를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에 환원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휴경지의 경작등을 통해 토양과

농촌의 자연환경 보전에도 필요한 것이다.

### 나. 조사료 생산 및 이용현황

조사료 생산기반을 보면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지난 1990년도에 271천ha 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1996년말에는 195천ha에 불과하다(표1).

1996년말 초지관리면적은 63천ha인데 이중 19%에 해당되는 12천ha는 하급초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초지 소유는 전체면적의 87%가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는 13%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유지가 낮은 이유는 지가상승으로 신규조성이 어려운 데 반하여 그 동안 사유지에 대한 초지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지면적은 국토면적 대비 0.6%로써 독일 18.6%, 일본 2.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초지이용년한이나 목초 생산성도 외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축종별 초지이용을 살펴보면 한육우 31천ha, 젓소 16천ha, 그리고 사슴이나 염소등 기타가축이 16천ha를 이용하고 있다(표2).

소사육에 있어 경영비중 사료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후사료 위주로 사양하고 있기 때문에 농후사료비의 부담이 큰 반면 조사료비는 상대적으로 낮다(표3).

따라서 앞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려면 농후사료 대신 조사료의 이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

(표1) 조사료생산기반 현황

구 분	1980	1990	1995	1996	'96/'80
초지관리면적	48천ha	90	66	63(1.2%)	131%
사료재배면적	78	181	164	132(6.7%)	169
전 작	40	138	140	98(12.3%)	245
답 리 작	38	43	24	34(2.9%)	89
합 계	126	271	230	195	155

\* ( ) 내는 임야·밭·논의 전체면적에 대한 각 비율임

료비중 농후사료비를 줄이되 값싸게 자가생산한 조사료의 이용을 높여야만 전체적으로 경영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다. 당면한 과제

#### (1) 능가이용 측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소사육을 풀사료 보다는 손쉬운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으로 생산비가 높다는 것이다.

조사료가 부족하고 또한 배합사

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배합사료를 지니치게 많이 급여하고 있어 소의 경제수명이 평균 7~8산에서 3~4산으로 단축되고, 대사 및 번식장애의 발생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이상적인 공급비율은 60:40 인데 실제 우리 농가에서 급여하고 있는 조사료의 비율은 (표4)에서 보듯이 33% 수준에 불과하여 농후사료의 공급비

(표2) 초지관리 및 이용실태('96년말)

초지관리 면 적	초 지 등 급			토지 소유별			이용 가 축		
	상 급	중 급	하 급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한육우	젓소	기타가축
천ha 63	천ha 22 (35%)	29 (46)	12 (19)	천ha 47 (74%)	8 (13)	8 (13)	천ha 31 (93천두)	16 (32)	16

\* 초지 ha당 사육두수기준 : 한육우 3두, 젓소 2두, 양(사슴) 30두

(표3) 소사육의 경영비 비교('96)

구 분	소		생 산 물	
	번식우(한우)	착 유 우	쇠고기(생체)	우 유
— 조수입	1,384천원/두	3,149	5,970원/kg	534
— 경영비	503(100%)	2,036(100)	4,917(100)	345(100)
— 사료비	385(77)	1,323(65)	1,458(30)	224(65)
· 농후사료비	279(56)	1,095(54)	1,262(26)	186(54)
· 조사료비	106(21)	228(11)	196(4)	38(11)
— 소 득	881	1,113	1,053	189

\* 자료 : 축협중앙회 조사부

[표4] 조사료의 粗·濃 공급비율 비교(정상급여율 60 : 40)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N Z	비 고
조 사 료	33%	48	66	70	95	TDN 기준
농후사료	67	52	34	30	5	

\* 자료 : 축산물생산과 연구의 국내동향('90, 축시)

율이 정상수준에 비하여 27% 수준이나 높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원유의 요소 태질소(MUN)분석기법을 통해 농후사료나 단백질사료 등을 과급 또는 과소 급여하는 낙농가에 대해서 개별농가 단위로 사료배합율과 사료급여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

최근에 조사료가 부족한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근교의 소사육농가들이 조사료기반이 취약하여 농후사료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작년 일기 불순으로 벧짚 수거량이 크게 감소하여 지금까지 조사료의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수입조사료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기계화 보급율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축협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마리당 조사료채배면적이 한우 번식우는 9평, 젖소는 233평에 불과하여 경지면적이 작은 경우 임차하여 서라도 사료작물채배를 늘려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조사료채배용 기계·장비의 보급율이 낮아 인력난 해소와 손쉬운 기계화

작업의 추진에 애로가 크다.

이렇게 기계화보급율이 낮기 때문에 농가들이 인력난과 3D현상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력에 의한 파종·수확, 사일리지와 건조제조 등 조사료작업을 기피하고 배합사료 또는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클 뿐아니라 아직 농가들의 조사료채배와 이용기술 또한 낮은 수준이다.

### (2) 사업추진 및 제도적 측면

소사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료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목초와 사료작물과 같이 양질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초지의 경우 산지등 토지가격이 급속히 상승하여 대상적지 확보가 어려워 지난 80년대에

는 매년 3천ha 정도 신규조성이 가능하던 것이 90년대 들어 연간 500ha 조성하기에도 힘들다.

○산지조성 : ('80) 685 → ('90) 8,047 → ('96) 8,289원/평 (12.1배)

— 농지(밭) : ('80) 2,589 → ('90) 16,181 → ('96) 19,008원/평(7.3배)

※ 신규 초지조성 감소 : ('80년대) 3,000 → ('90년대) 500ha/년

또한, 농가에서 초지의 관리 및 이용기술도 부족하여 하급초지의 비율이 전체 초지관리면적의 19%나 되고,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새로운 초지전용 수요가 증가하여 90년대에 들어 초지관리면적이 늘기 보다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초지관리면적 : ('80) 48 → ('90) 90 → ('96) 63천ha

○초지전용면적 : ('80) 0.1 → ('90) 0.4 → ('96) 3.8천ha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조



제조와 벗짚수거가 기상조건에 좌우되고, 조사료와 사료재배용 종자를 거래할 상설시장이 없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렵다. 건조제조시기가 늘 장마철과 겹쳐 양질 건조생산에 애로가 클 뿐 아니라 월동기에는 일기 불순으로 건조벚짚의 수거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조사료와 사료재배용 종자를 거래할 상설시장이 없어 시장기능을 통한 거래가격 형성, 물적유통 및 생산촉진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 일부 보조율이 낮고 지원조건이 농가의 실정에 맞지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크다.

예를 들면 벗짚잡모니아처리사업의 자재는 비닐의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구입 희망농가에 한하여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암모니아가스 주입은 종전에 전액 보조지원하던 것을 1995년부터 50%는 농가부담을 하게 한 결과 보조금액이 작고(기당 약35천원) 일부 농가에서 자부담분을 연체하여 정산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면, 조사료기체화단지의 경우 단지기준이 너무 높아 사료기반이 적은 한우농가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료재배용 종자수급에 있어서 국내의 종자보급기관에서는 주곡 중심으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의

(표 5) 조사료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1996	1997	1998	2001	2004	
수 요	한 육 우 용	6,240	6,562	6,655	5,795	5,409	
	낙 농 용	1,610	1,613	1,623	1,659	1,688	
	계(A)	7,850	8,175	8,278	7,454	7,097	
공 급	양 질 조사료	목 초	441	448	469	518	560
		사료작물	1,176	1,440	1,620	2,080	2,800
		답 리 작	238	315	350	481	640
	계(B)	1,855	2,203	2,439	3,079	4,000	
	공급율(B/A)	24%	27	29	41	56	
	수 입 조 사 료	211(26%)	250(30)	285(33)	390(47)	500(63)	
	산야초, 벗짚등	2,252	2,309	2,795	3,364	2,597	
	합 계(C)	4,318	4,762	5,519	6,833	7,097	
부족량(A-C)		3,532	3,413	2,759	621	0	

\* 부족량은 배합사료로 대체공급 추정

개발이 매우 부진하다. 따라서 이들 우량종자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청예용 옥수수종자의 경우 80년대에 개발된 보급종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농가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의 장려품종은 128종에 이르고 있으나 국산 장려품종은 겨우 12종 뿐이다.

### 3. 조사료 수급계획

조사료 수급계획을 보면 (표5)에서 보듯이 현재 양질조사료 공급율이 조사료 총수요의 24%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56% 수준까지 끌어 올려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공급비율을 정상수준이 되도록하여 농후사료의 사용을 줄이고 조사료의 공급을 확대하여 사료비를 낮추어 나가야 한다.

1997년도 조사료 수요는 총

8,175천톤으로서 이중 목초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2,203천톤을 공급하는 한편, 수입조사료 250천톤과 벗짚·산야초 2,309천톤 각각 공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배합사료를 대체하여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 조사료 시책방향

### 가. 기본방향

조사료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소사육농가에 대하여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양질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며 둘째, 벗짚등 국내외의 부존 조사료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고 셋째, 양질조사료를 생산 확대하기 위해서 목초 및 사료작물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보급을 촉진 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특집

## 조사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

### 나. 세부추진대책

#### (1) 농가유형별 조사료확보 모델 설정 보급

조사육농가의 유형별·규모별로 다양한 조사료확보방안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시·군과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목초와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를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과 농촌지도소가 중심이 되어 개별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사육규모와 생산기반을 고려한 조사료확보 모델을 설계하여 보급하고, 아울러 조사육농가에 대하여 목초와 사료작물의 재배목표량을 두당 한우(번식우)는 200평이상, 젖소(착유우)는 300평 이상씩 부여하여 양질 조사료의 생산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다.

(2) 양질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 조성 조사료생산을 위한 농가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하여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장비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매년 세부사업의 메뉴별로 신청량을 받아 사업계획량과 자금규모를 확정하여 농가호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이나 다두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부업농은 가급적 자력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은 (표6)과 같으며, 금년 자금규모는 61,592(영농법인 210개소 포함)호에 총 380억원(보조 180억원, 융자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한 세부사

업별 추진방법으로써 첫째, 초지조성은 매년 1~2천ha씩 신규조성을 하기 위하여 개발가능한 산지중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 알선하고 초지조성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임대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계획에 따라 풀사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산간지대 중심으로 초지 4,500ha를 신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초지는 타용도의 전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초지는 종자·비료 등 자재대를 지원하여 우량초지로 보완토록 하고 있다.

둘째, 사료작물은 사료포(田作) 및 논뒷그루재배를 이용하여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사료포는 경사·구릉지와 휴경지 등 밭을 개발 이용하고 평야지대는 논뒷그루 사료작물재배를 권장하며 낙농지대와 한우개량단지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단위로 1개소씩 답리작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재배면적을 늘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도기관에서 생산농가를 지도하고 있으나 옥수수사일리지(silage)를 제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사일로(silo)와 종자·비료대를 우선 지원하여 생산성이 높은 옥수수 사일리지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다.

금년 봄부터 엘니뇨(El Nino)현상이 나타나 미국·캐나다·호주

(표 6) 조사료생산 세부사업별 지원기준('97)

세 부 사 업		지 원 비 율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조	융자	자담	
기 반 시 설	목 로 개 설	20	50	20	10	km당 45백만원 공당 30백만원
	용 수 개 발					
기 반 시 설	전 기 시 설	20	50 (30)	20 (40)	10	km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부 지 정 지					
기 반 시 설	영구목책시설	20	50 (30)	20 (40)	10	ha당 3백만원 km당 100백만원
	진입로개설					
조 사 료 생 산	초 지 조 성	20	50	50	50	ha당(경운)3.130천원 ha당 1,080천원 ha당 302천원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벚짚암모니아 처					
장 비 기 타	기계 장비	20 (10)	30 (10)	40 (50)	10 (30)	실제 구입단가
	soil 시설	20	30	40	10	1기(50톤)당 5백만원

\* ( )내는 개별농가, ( )외서는 법인·단체



와 같은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직접 사료곡물 등 농산물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될 뿐 아니라 작년 일기불순으로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료 부족현상을 거울삼아 농가에서는 금년 월동기를 대비하여 사일리지·벧짚 등 조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을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셋째,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공급에 있어서는 국내산 청예용 옥수수종자의 경우 종자공급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나 국내산보급종이 도입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원 118호와 같은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료재배용 종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부족하므로 축협중앙회가 지역축협과 시·군을 통해 농가별 종자신청량을 받아 외국산 우량종자를 싼값으로 적

기에 도입하여 신청농가에 공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또한 외국산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협중앙회가 해외에서 매년 5천톤 수준의 종자를 계약생산하여 수입 공급하도록 하고 종자공급체계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넷째, 벧짚 등 국내 부존 조사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생벧짚사일리지의 사료화 이용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우선, 금년에는 희망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생벧짚사일리지는 건조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논에서 벼수확 즉시 생벧짚상태에서 라운드베일링과 랩포장의 기계화 제조과정을 거쳐 발효 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생벧짚사일리지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5호 농가단위로 기계화 장비(Roundbaler·Wrapper·Silagrip)를 지원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에 의하여 장비의 가동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비는 목초류와 줄기가 가는 화본과 사료작물(straw류)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경제성과 작업능률을 고려하여 농가실정에 맞는 기종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벧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현수준을 유지하면서 축협중앙회가 자재단가를 일괄계약하여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보조율과 추진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지만 생벧짚사일리지가 어느정도 정착되면 벧짚암모니아처리하는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조사료생산 기계화 촉진

조사료생산 기계화보급을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조사료기계화단지를 육성지원하고 단지규모의 기준도 완화해 농가에서 장비 구입자금을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조사료기계장비는 이용농가와 경영규모에 적합한 표준규격과 모델 선정하여 품질검증을 거쳐 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축협중앙회가 일괄단가 계약을 하여 우수한 농기계를 값싸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에 공급된 농기계는 일정기간 하자보증과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 하는 등 정책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농가기술 교육 및 해외 조사료자원의 개발 추진

조사료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농가기술교육은 건조와사일리지의 집중 생산시기인 지난 7~8월중에 도 및 시·군단위로 실시하고 기술교재도 20천부를 만들어 소사육농가에 배부한 바 있으나 이와같은 기술교육은 농가에게 신기술을 전수하는 기회로 삼아 농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양질조사료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부족량은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축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연해주·만주와 북미 등을 대상으로 해외의 부존 조사료자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지원하여 조사료를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입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5) 초지 및 조사료관련 제도개선

먼저 초지법령을 정비하여 초지 조성의 허가청을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초지조성자의 권리·의무 이전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초지실태조사를 연 2회씩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여 초지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초지 대신 산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가능한 초지의타용도 전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이용에 관한 기술연구와 사료종자의 신품종개발을 전담할

**우리 소산업은 그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경쟁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개방과 개혁이란 커다란 변화속에서 최근에는 소값까지 하락되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농가가 적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소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도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소의 신설을 추진함과 아울러 조사료물류유통기지를 중부권·영남권 및 호남권에 각 1개씩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조사료와 사료종자의 상설판매소로서 그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조사료와 사료종자의 시장접근물량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함으로 필요한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조기에 확정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5. 맺는 말

지금까지 조사료의 수급현황, 당면한 과제 그리고 정부의 시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소산업에 있어 조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소산업은 그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쟁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개방과 개혁이란 커다란 변화속에서 최근에는 소값까지 하락되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농가가 적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소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도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썩 외국산 쇠고기와 낙농제품에 대응하려면 조사료 생산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농가 스스로가 양질조사료를 충분히 생산 이용하여 쇠고기와 우유의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향상을 꾀해 나가야만 한다.

개방사회에서는 더 이상 소산업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산 제품과의 가격과 품질경쟁에서 이겨 우리 농가가 생산한 쇠고기와 낙농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대안 밖에는 없다.

소사육농가 모두가 조사료에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생산과 이용 확대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